

가톨릭中央醫療院의

과거와 오늘

金 在 浩

가톨릭의대 교수

지금으로부터 45年前 京城区天主교회 유지재단은 조그마한 個人醫師가 경영하는 個人병원을 인수하였으며 이름은 성모병원이라 명명하여 불쌍한 환자들의 사랑의 의료시혜를 베푸는 것이 처음 시작이 되었다. 오늘날과 같은 大 CMC로 發展한 기틀을 마련했던 것이다. 이렇게 크게 發展되기까지는 그동안 많은 사람의 정성과 협동이 필요했음을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이에 호응한 京城教區 천주교유지재단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이해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오늘날까지의 CMC 발전 연혁을 되새겨 보면서 오늘의 현황을 간략히 소개 하고저 한다.

聖母病院의 出帆

1915年경 天主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서울 명동성당 뒤에 있는 聖바로 修女院안에 「바로로 수녀원 시약소」라고 이름지어진 무료환자 진료소가 생기게 되었다.

프랑스 태생의 빈산수녀가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서민들을 돕기 위하여 이 작은 「施藥所」를 차린 것이다. 그 당시 하루에 70 - 80名정도가 약을 타먹기 위해서 찾아 왔다고 한다.

이때 경성의전을 갔나온 의사 朴秉來氏가 이곳을 돕게 되는 것이 인연이 되어 드디어는 京城教區

천주교 유지재단이 일반인들을 위한 醫療施惠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 1963年 3月11日에 日本人의사가 경영하던 村上病院 (現 中区 洞39)을 時價 45,200 원에 매수하여, 이름을 聖母病院이라 명명하였으며 무료시약소도 院內로 흡수되어 계속 영세민을 돌보게 되었던 것이다.

하루 100여명이상의 환자 진료를 했다고 한다. 그 당시 대지는 583坪 건평 306坪 7층(8棟) 병실 20室 25病床이었으며 初代病院長엔 朴秉來 박사가 취임하여, 모두 4名의 醫師가 근무를 하였던 것이다. 이어 1年後인 1936年 5월 1일엔 병원건물의 一部를 병실로改修하고 성모병원 격리실 설립허가를 京畿道知事로부터 받았다. (대지 51坪 6층 5勺 건물 36坪) 병실 5室, 5病床 그후 同年 5月 9日에는 現 中区 明洞2街 1本원 현관위치에 있었던 青年會館 木造 2層 건물 중 2層에 7病床을 확보하고 사립병원 사용허가를 받았다.

그후 1942年 11月 6日에는 용산구 원효로 4가 1번지 (현재 성심여고 정문부근) 소재 건물을 구득하여 이를 聖母病院 元町分院 設立을 허가받게 되었다. (대지 1,295평, 건물 439坪, 1勺 병실 30병상)

그리고 1945年 해방이 되면서 그 이듬해 9月 23日에는 현재 산재병원 위치에 있었던 적산가옥 私立病院 (佐藤病院)을 접수 매입하여 分室로 쓰게 되어 (2層건물 약 20 Beds) 성모병원은 날로 발전하게 되었고 아울러 名醫 박병래원장의 명성도 경향각지에 널리 퍼지게 되므로서 하루진

료환자는 수백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6.25 動亂이 터지게 되자 성모병원은 치료를 못하게 되었으며 3개월간의 암흑세계가 지나 9.28 수복이 되면서 다시 성모병원의 의료팀은 모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성모병원 팀(박병래 원장, 윤건희, 최상선 제씨)은 국군을 따라 北上, 11월초 평양에 영원한 도움의 수녀회의 명의로 성모병원을 발족, 무료진료를 개시했지만(1950年 11月末), 국군의 후퇴로 곧 철수해야만 했다.

그후 성모병원의 스텝진이 모두 軍에 入隊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해체되었지만 1.4 후퇴이후 피아간의 격렬한 공방전을 벌이던 1951年 이해 가을부터 聖母病院은 다시 대열을 정비하기 시작, 윤을수신부가 임시병원장직을 맡아 텅빈 서울에서 소규모로나마 환자진료를 시작하였던 것이다.

가톨릭 醫大의 開校

6.25 동란에서 다시 서울이 탈환되면서 戰雲이 사라지고 休戰으로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게 되자 南下했던 피난민들은 다시 서울에 몰려 들었으며 이때문에 병원은 진료에 바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병원운영이 원만해 지자 경성교구 천주교유지재단 이사장 노기남주교를 비롯한 一部신부들은 醫大設立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1954年에 들어서면서 醫大設立을 추진 4月 8日 字로 文教部의 인가를 받아, 初代醫學部長에 윤형중신부가 부임. 5월에 60名의 학생을 모집했는데 1千5百 47名이 지원하여 24:1의 높은 비율을 보였던 것이다. 이름을 聖神大學醫學部로 하였고(神學部는 淸化洞所在), 이에 따라 聖母病院은 第一部屬病院으로 인가하게 되었고(병상 60 Beds), 2대병원장엔 박양운신부가 부임하였고, 醫學部長직을 겸직하게 되었다.

이어 朴良元신부, 윤형중신부가 대를 이어 의학부장직을 맡은 가운데 1956년 6월 6일에는 박병래박사가 三代병원장으로 취임하였으며 이제 대

학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한때 高麗大學校와의 合併에까지 몰고 갔었지만, 양기섭신부가 四代병원장겸 의학부장으로 취임하면서 다시 再起의 發展으로 전환하게 되었던 중요한 시기였다. 그후 學校名은 聖神大學에서 부터 「가톨릭大學醫學部」로 變名되었으며, 이에 따라 병원도 가톨릭 醫大부속 제1부속 성모병원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양기섭신부와 당시 尹德善박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종합병원으로서의 임상각 스텝진이 보장되었고 大學기초의학교실의 태동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더우기 어려움속에서도 최신건축 설계의 현대식병원(현재의 명동 성모병원)을 이루어 놓았던 것이다.

그후 1961年 11월 5일에 五代병원장겸 의학부장으로 朴喜奉신부가 취임하게 되었고 이어서 12月 1일에 本신축건물인 聖母病院(8層, 대지 1,980坪, 건물 2,893坪, 병실 300 Beds)을 개원. 임상 全科目を 진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가톨릭 中央醫療院의 탄생

부속병원이 많아지게 되자 1962年 6月 16日에는 이들을 총괄하는 가톨릭 중앙의료원(CMC)으로 개편 發展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가톨릭 醫大와 함께 聖母病院, 聖요셉病院, 聖바오로病院, 聖家病院, 聖母慈愛病院, 永遠한 도움의 聖母病院, 議政府성모병원, 金안드레아病院등 이 포함된다.

이래서 初代의료원장에 朴喜奉신부와 의무원장에 尹德善박사(교수)가 취임하게 되었다.

급증하는 환자수요에 따라서 1965年 7月 14日에는 신관 특별동(地下 2層, 地上 3層)을 本館에 접속하여 증축개원하게 되었으며(건물 1,152坪, 병실 33 Beds),

1965年 7月 20日 2代의료원장겸 병원장으로 金昌烈신부님이 就任하였으며 동년 5月엔 정신과 병동(7層)을 옆에 붙여 다시 신축하기에 이르렀고 그후 本院은 非營利機關으로 보사부의 인가를 받게 되었다. (1966.6.23)

三代의료원장으로 양기섭신부가 1967年 9月10日부터 1968年 3月 10日까지 취임하였으며 1967年 11月 19日엔 의무원장 尹德濬교수 및 여러 스태프의 사퇴로 인하여 의무원장으로 정일천 교수가 임명되었던 것이다. 이후 四代 五代 의료원장으로서 柳秀철신부, 三代 四代 五代 六代 의무원장엔 조규상교수가 각각유임 발령되어 中興期를 맡는 우리 CMC의 前進에 더욱 박차를 加하기 시작했으며 아울러 심장이식수술, 角膜이식수술등으로 처음 사회의 주목을 다시 끌게 되었음은 다행이었던 것이다.

그후 時代의흐름을 앞질러 설립한 産業医学 센터창설은 여기에 産業의학연구소를 흡수하고 産業재해병원을 新設하게끔 이끌었다. 이로서 1971年 11月 27日에 産業재해병원이 개원하게 되었으며 (中區 저洞 1가 2-6). 産業재해로 인한 傷病과 各種疾患의 診斷治療, 再活교육을 위하여 개원하였다. (대지 314.6坪, 건물 2,201.9坪, 地下 2層 地上 10層, 병실 24, Bed 132)

이로서 초대 병원장엔 李昇漢교수가 임명되었다.

CMC의 기구가 점차 방대해짐에 따라 기획실을 신설했으며, 초대 및 2代실장에 安容八교수가 임명되었으며 七代 의료원장으로서 다시 金昌烈신부가 유임되어 (73.11.22) CMC의 기틀이 점차로 굳혀지게 되었던 것이다.

1974年 5月 3日엔 여의도 성모병원이 CMC의 精神科 위주의 병원으로서 開院하게 되었는데

(20,000坪, 대지에 地下 1層, 地上 7層, 1,734坪, 병실 48실 120 Beds, 직원 95名) 여기엔 정신과를 비롯하여 內科, 소아과, 방사선과, 임상병리를 두었고 부속기관으로서 가톨릭 정신건강연구원, 정신건강연구소를 두었고 초대병원장겸 연구원장에 金鍾段교수가 임용발령 되었다.

한편 서울 서대문구 中林洞소재의 聖요셉병원은 초창기부터 부설 간호학교를 두어 간호원양성에도 주력하였거니와 그후 가톨릭醫大 간호학과와 前身이기도 한것이다. 성요셉병원이 가톨릭의대 부속병원으로서 그곳의 극빈자환자의 진료에 많은 공헌을 했지만 운영에 어려움으로 1974年 8月 31日 드디어 폐쇄하게 되었으며, 대신에 명동소재 산재병원 뒤에 慈善診療所를 신축 (地下 1層, 地上 3層, 병실 6실, 32 Beds) 하여 1974年 9月 2日부터 자선환자의 진료를 맡게 되었다.

그후 1975年 9月 6日엔 大田성모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승격시켰으며 1976年 9月 1日엔 七代 의무원장에 安容八교수가 임용되었고 1976年 9月 1日을 기하여 의정부성모병원을 CMC 직할로 운영체제를 바꾸었다. (의정부시 2洞 271, 건평 107.6坪, 연건평 438坪, 地下 1層, 地上 3層)

다가오는 5月 3日에는 서울 강남구 반포동 산 35 소재의 江南성모병원이 신축개원하게 되고, (520 Beds) 또 이어서 医科大学, 臨牀의학연구소, 의학도서관의 신축이 이루어지는 날엔 CMC 医療半世紀의 일대세의 비약을 달고 힘차게 일어 설때가 온 것이다.

〈 사무실 이전 안내 〉

본협회사무실이 아래와 같이 산재병원에서 강남성모병원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사무실 소재지 : 가톨릭중앙의료원 기획실내
 강남성모병원 2022호실 51-4292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 산 35-1

이전일자 : 1980년 4월 10일

〈 한국가톨릭병원협회 〉